



HANNAH CHOI MINISTRIES

사람의 의무

오늘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성경 번역으로 보면 “Now all has been heard; here is the conclusion of th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duty of all mankind.” 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는 영어로는 ‘Fear God’ 인데 Fear 의 뜻은 무서움과 두려움의 합체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주권자며 주관자로 경외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이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발걸음은 예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해주신 사실을 내 인격 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것 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몸을 성전 삼고 들어 오셔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생명 싸개로 우리의 영혼과 육을 보존 하셔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명령을 지킬찌어다’ ‘Keep his commandment’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간직하고, 보존하여,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에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데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또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는 구절은 영어로 “for this the duty of all mankind.” 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격적인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류의 의무이자 책무라는 것입니다. All Mankind 즉 인류라는 뜻은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뜻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없이 제외되지 않고 인류라는 말에 포함된 모든 사람 모든 개개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해야 할 책무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기도할 때에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이 제 구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 하오니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